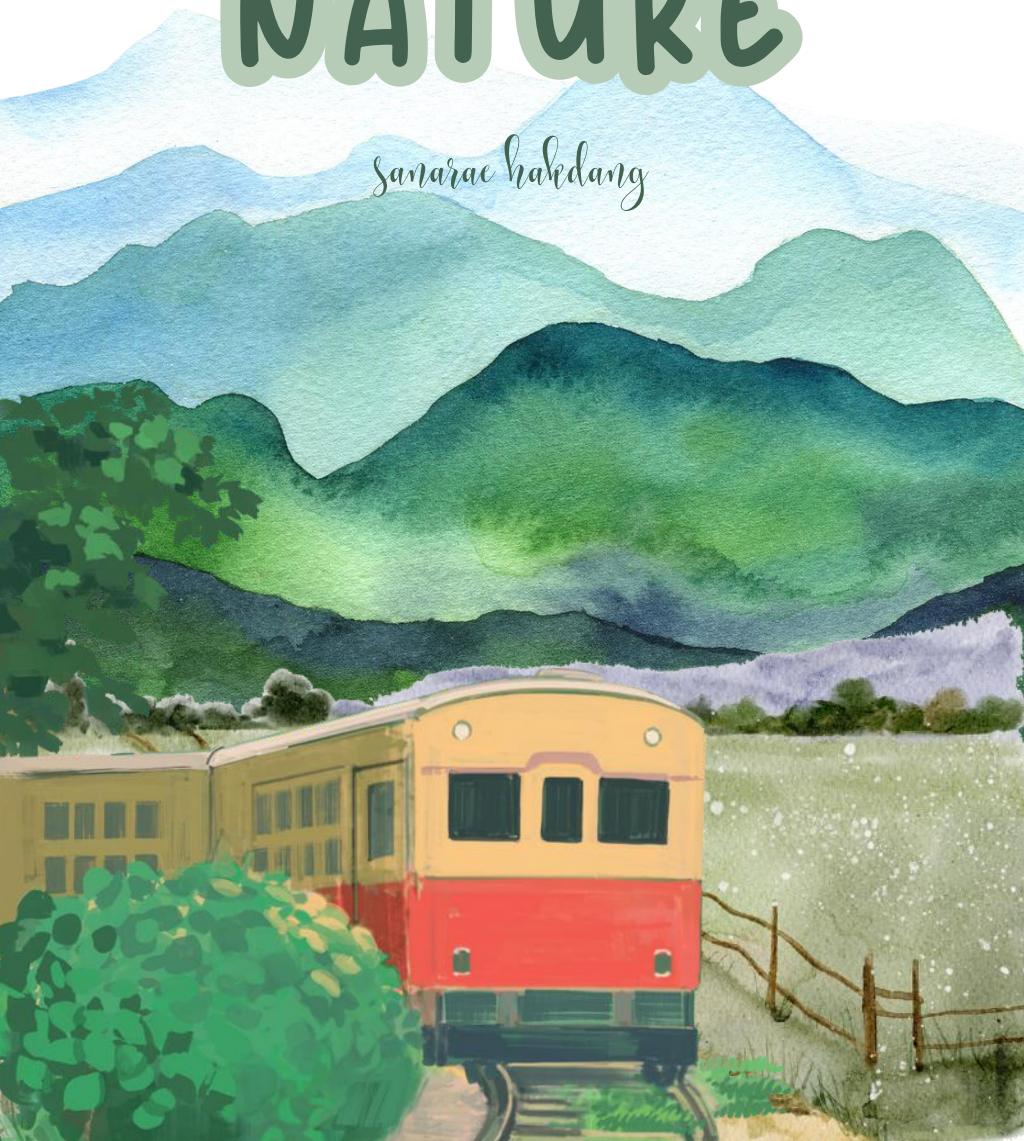


ECHOES OF NATURE

Sanarae hakdang



별빛이 내려오는 길

작은 손에 별을 담았어
반짝반짝,
내 마음 속 비밀 같아
태백 산 정상에서
바람이 말했어
"네 안에도 별이 있어,
잊지 마"
하늘은 가까웠고
내 발밑은 반짝였어
오늘 밤 나는
내 안의 별을 따라 걷고 있어



바람의 목소리

바람이 골짜기를 지나가요
나뭇잎들이 작은 손을 흔들어요
“안녕, 오늘도 반가워”
나는 눈을 감고 귀를 열어요
바람이 내 귀에 속삭여요
“너의 비밀을 알고 있어
너의 꿈이 하늘을 날고 있어”
그래서 나는 바람을 따라 뛰어요
구름이 놀라는 소리가 들려요
그리고 웃어요
태백의 바람은 나의 친구니까요



바람이 알려준 이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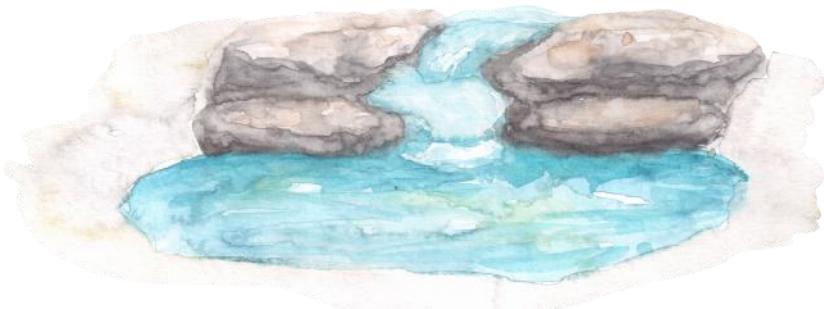
태백의 바람은 이름이 있어
나뭇잎에 속삭이고
하늘에 편지를 남기고
내 머리칼을 스치며 인사했어

"네가 잊은 너의 이름을 찾아봐"
바람이 그렇게 말했어
그래서 나는 오늘도
태백 산을 오르고 있어



황지연못의 거울

물결이 잔잔히 흔들릴 때
내 얼굴이 작은 그림처럼 비쳐요
연못 속 도깨비가
살짝 웃으며 말했어요
“네 마음속 이야기들이
여기애 숨어 있구나”
연못에 돌을 풍당 던졌어요
작은 원이 천천히 퍼져가요
마치 내 마음의 파문 같아요
나는 속삭였어요
“비밀을 지켜줘, 황지연못아
내 꿈이 자라나는 소리를 들려줄래?”



석탄 꽃

검은 돌을 품은 산자락에서
나는 작은 노란 꽃을 만났어.

잿빛 흙 위에 홀로 서 있는 모습,
세상에서 가장 밝은 얼굴 같았어.
광부 아저씨가 옆에서 말했어.

"여기도 꽃이 핀단다.

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으려고
애쓰는 작은 빛이 있단다."

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도 조금 밝아졌어.

검은 돌 속에도,
보이지 않는 빛이 숨어 있음을 알았거든.
이제 나는 믿어.

가장 힘든 날에도,
내 마음속에도 분명히
노란 꽃 하나가 피어날 거라는 걸.



산의 목소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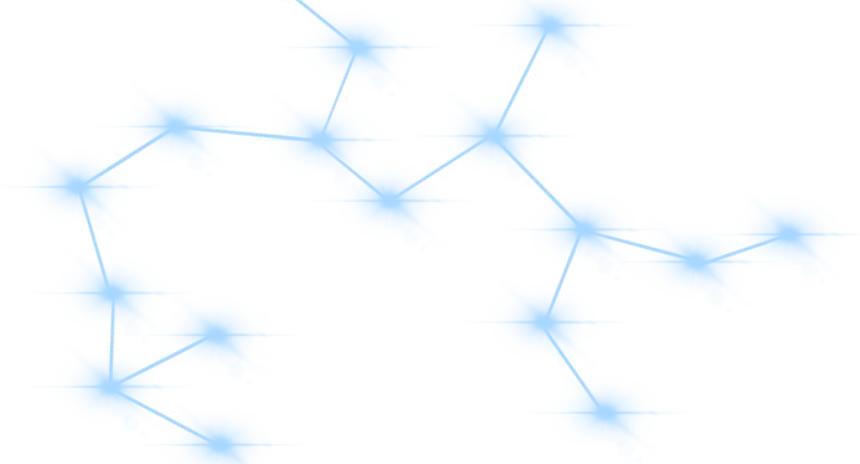
태백 산은 말을 해.
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,
괴를 기울이면 들려.
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,
작은 풀잎이 햇살을 받아
조용히 숨 쉬는 소리,
멀리서 새가 부르는 노래까지.
나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어.
발끝에 전해지는 산의 심장을 느끼며.
산은 말했어.
"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
나를 찾아와 숨을 쉬어라."
그래서 나는 알았어.
태백 산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걸.
언젠가 나도 산처럼
조용히 세상을 안아줄 수 있기를.



나만 아는 별자리

밤하늘을 올려다보면
내가 만든 별자리가 보여
연결되지 않은 별들을 잊고
내 마음을 그려 넣었어

작은 비밀을 가진 기분
별빛이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
세상에서 나만 아는 하늘을
가슴 속에 품게 되었어



구름 위의 편지

구름은 언제나 바쁘게 훌러가
하지만 오늘은 잠시 멈춰
내 마음을 받아주었어
비밀 편지를 띠우듯, 바람에 실어서

혹시 저 멀리 별나라에 닿을까
혹은 누군가의 꿈 속으로 갈까
구름에게 부탁했어
내 목소리를 꼭 전해달라고



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

작은 나무 한 그루가 말했어.

"겨울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."

찬 바람을 맞으며

작은 몸을 단단히 붙잡았대.

봄이 오기 전까지,

눈 속에서 조용히 숨 쉬며

누군가를 기다렸대.

나도 그 나무처럼 말했어.

"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."

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

하늘은 알고 있어.

바람은 나를 지나며 위로했어.

내 안에도 뿌리가 있어.

눈보라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.

언젠가 햇살이 나를 다시 찾을 거야.

그때 나는 더 단단한

나무가 되어 있을 거야.



숨 쉬는 산

태백의 산은
아침마다 깊게 숨을 쉬어요
하얀 안개가 산을 감싸고
새들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요

나는 산에 귀를 대었어요
“쿵, 쿵”
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요
산도 살아 있다는 걸 알았어요

그리고 다짐했어요
“나도 너처럼 숨 쉬는 세상이 될래
모든 걸 품고 웃을 수 있는
커다란 산이 될래.”



Sanarae haledang

